

2022년 08월 2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84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6장 14~30절(구약p.766)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26.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27.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28.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 말씀선포 /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

“동정한다.” 라는 말은 남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거나,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의미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하여 선을 베풀 때도 주의 깊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친구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던 옴은 철저히 실망했습니다. 옴은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에게 느끼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옴의 말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자가 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1.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정이 필요합니다.

- 본문에서 나타나듯 낙심한 마음에는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고난당 할 때 때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러한 옴은 만일 자신이 낙심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러한 자신을 동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옴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난 당하는 자신을 동정해 주지는 못 할만정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마치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범람해 피해를 주는 개울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옴이 풍요롭게 살던 때에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옴이 친구들의 따뜻한 동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친절 대신 상처만 안기고 있습니다. 옴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친구들은 옴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옴에게는 그러한 가르침보다 동정심이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동정심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데도 우리처럼 시험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을 우리는 “공휼”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을 공휼히 여기시며, 인생의 문제를 겪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자들을 공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공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공휼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공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공휼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에 대하여 공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쓰럽고, 애처롭게 여겨집니다. 우리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휼히 여길 때, 주님의 공휼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디 공휼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옴의 친구들은 옴을 책망했습니다. 옴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옴은 친구들의 가르침에 그 마음은 더욱

지치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고난 당하는 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옴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옴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옴의 모든 상황과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옴을 판단의 잣대로 저울질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옴은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 결론을 내리고, 옴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귀는 막혀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굳어짐으로 옴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쏟아 내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이며 친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 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안의 슬픔과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않으며,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단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때로 더욱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 고난과 낙심됨과 괴로움의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 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듯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폐 회 / 주기도문